

경기도 시·군별 학군에 따른 오락·유흥업소 형성과 재정자립도간의 관계성

김동건
한신대학교 컴퓨터공학부
e-mail : wrjs@hs.ac.kr

Relationship between Formation of Entertainment Establishments and Degree of Financial Independence according to School Districts by City in Gyeonggi-do

Donggeon Kim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Hanshin University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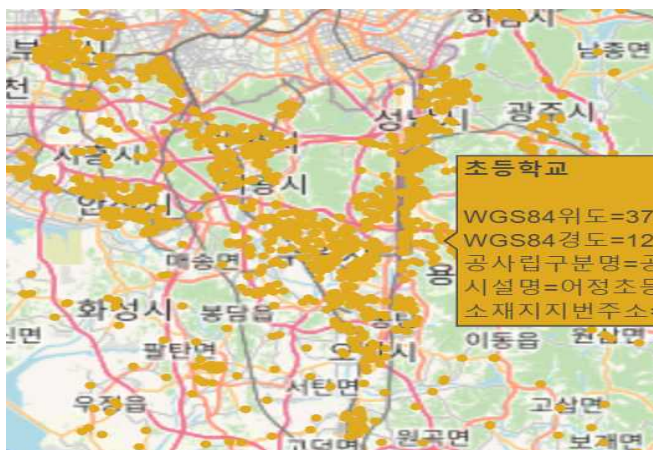
본 논문에서는 전국적으로 과열된 학군 현상이 오락·유흥업소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호 관계성을 데이터 모델링과 분석을 통해 도식화한 모형으로 제시한다. 도식화된 모형과 각 시·군별 재정자립비율을 분석해 상대적 연관성과 관계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서 론

교육열이 높아짐에 따라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학군이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학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수의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해있다. 또한 학군이 형성된 지역은 오락·유흥업소의 분포 현황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학군형성과 오락·유흥업소의 분포현황에 대한 관계성과 학군이 형성된 지역의 재정자립도비율간의 관계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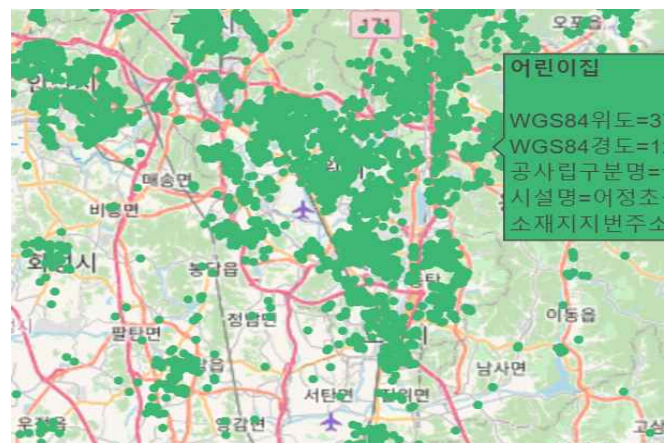
2. 학군 형성에 따른 분포 현황

그림 1의 경우에는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형성된 지역을 분포도를 통해 시각화한 자료이다. 학군이 형성된 지역에 더 많은 교육기관이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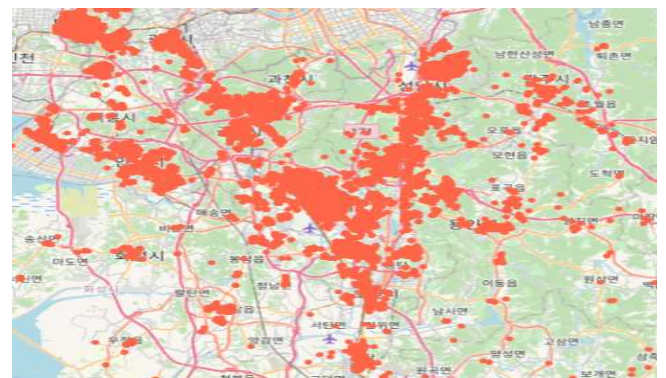
(그림 1) 초·중·고등학교 학군 분포 현황

그림 2와 같이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한 지역에 유치원도 같이 응집되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이 형성된 지역에는 학원 및 교습소가 형성되며, 완성된 학군의 과열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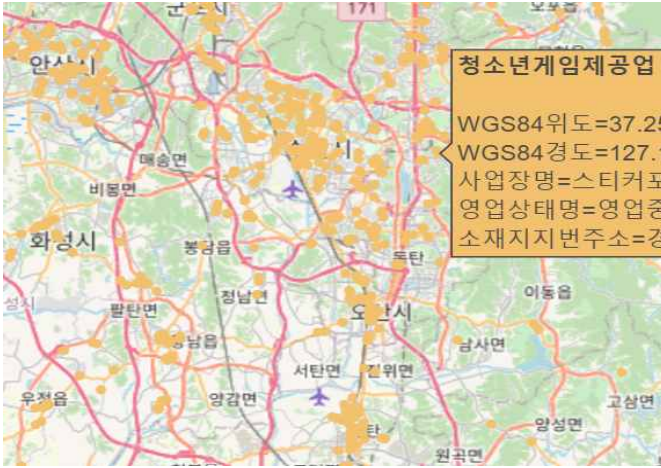
(그림 2) 초·중·고등학교 학군 분포에 따른 유치원 형성 현황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이 형성된 지역에는 학원 및 교습소가 형성되며, 완성된 학군의 과열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군이 형성된 지역은 거주민 밀집도가 높아지며, 부수적으로 서비스 업종과 유흥업종이 증가하게 된다.



(그림 3) 학군을 따라 형성된 학원 및 교습소 현황

그림 4를 살펴보면 학군을 따라 밀집되어 형성된 오락·유흥업소 형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군의 분포 및 형성된 크기가 커질수록 오락 및 유흥업소의 분포도가 확산됨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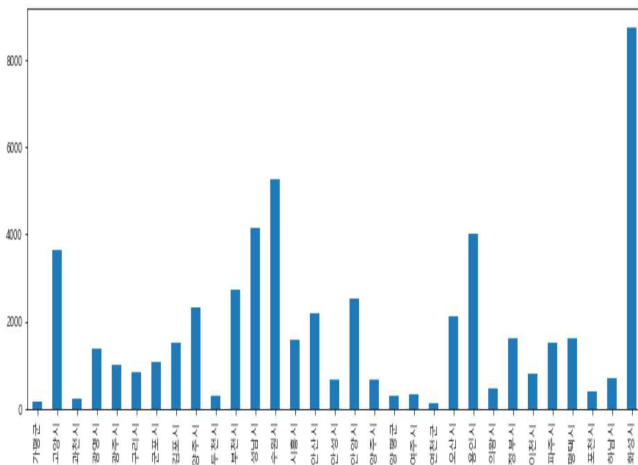
(그림 4) 학군을 따라 형성된 오락 및 유흥업소 형성 현황

성인PC방, 노래방, 클럽, 청소년오락실, 당구장 등 다양한 오락·유흥업소가 학군이 형성된 지역에 다양하게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학군의 형성에 따라 밀집되어 형성된 오락·유흥업소와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고, 결과적으로 지자체별 재정자립도가 상호 어떤 연관을 갖는지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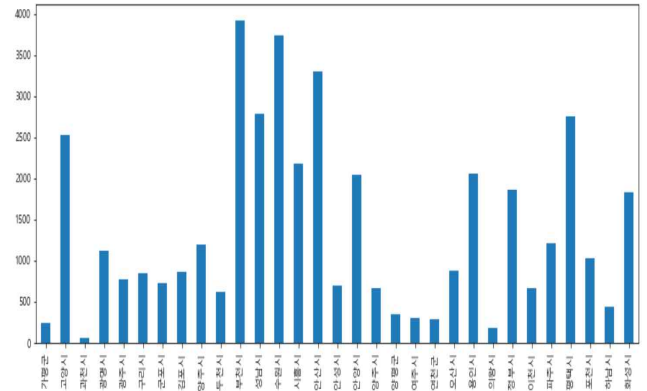
3. 학군 형성에 따른 상호 관계 형성

경기도 지자체별로 주민수와 학교 및 유치원의 분포도는 그림 5처럼 매우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지자체별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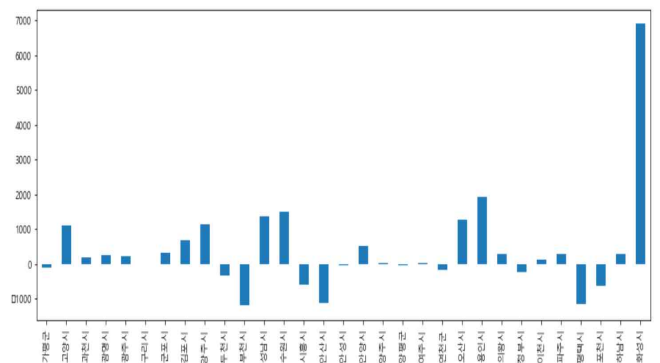
면적대비 분포가 밀집된 지역일수록 학군이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특정 지역에 따라 해당 학군의 분포의 격차가 큼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에서 화성의 경우 다른 지자체에 비해 학교 및 유치원의 수가 높지만, 부천 또는 수원에 비해 학군 형성이 밀집되지 않고 느슨하게 형성됨을 그림 1-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지자체별 오락·유흥업소 분포

학군이 밀집하게 형성된 수원과 부천의 경우에는 오락 및 유흥업소도 높게 분포함을 그림 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학군이 밀집된 지역일수록 도시가 발전하고, 거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업종의 분포도가 다양해짐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런 오락 및 유흥업소가 높게 형성된 지자체일수록 더 낮은 비율의 재정자립 비율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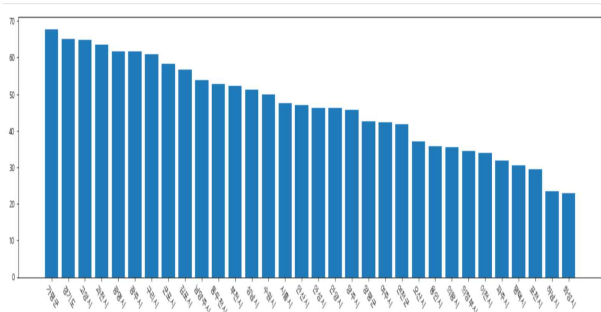
그림 7은 초·중·고등학교의 분포와 학원 및 교습소의 분포를 더한 값과 오락 및 유흥시설의 수를 연산한 그래프이다. 부천, 시흥, 안산, 평택, 포천시 등의 경우에는 오락 및 유흥업소의 분포가 교육과 관련된 시설보다 많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밀집된 학군을 보인 지역일수록 오락 및 유흥업소의 분포가 더 높은 비율로 해당 지역에 확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군이 형성되었지만, 오락 및 유흥업소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적게 형성된 성남, 고양, 오산, 용인의 경우에는 해당 결과값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위권에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해당 결과값이 높게 분포한 지역일수록 재정자립 비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그림 8을 통해 보여준다.



(그림 7) 교육 기관과 오락기관의 상대적 결과값

그림 8을 살펴보면 학군이 높게 형성되고, 오락 및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형성된 지역일수록 재정자립비율이 하위권에 속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림 7에서 도출된 결과값이 음수를 나타내는 지역일수록 재정자립비율이 하위권에 머무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인구가 밀집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지자체의 면적이 넓은 화성, 용인의 경우에는 그림 7에서 도출된 결과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은 높다. 하지만 결과값과

다르게 해당 도시는 비교적 낮은 재정자립비율을 갖는데, 그 이유는 도시의 크기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크며, 학군과 오락 및 유흥업소가 밀집된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그림 8) 지자체별 재정자립비율

시군명	재정자립비율(%)	파주시	46.33
화성시	67.77	오산시	46.17
성남시	64.94	고양시	45.68
용인시	64.72	광주시	42.65
과천시	63.58	부천시	42.38
이천시	61.69	구리시	41.65
경기도	61.64	남양주시	37.01
안산시	60.90	포천시	35.78
수원시	58.25	안성시	35.54
하남시	56.77	의정부시	34.48
의왕시	53.79	양주시	33.83
평택시	52.71	동두천시	31.72
시흥시	52.36	가평군	30.40
김포시	51.14	여주시	29.37
안양시	49.85	양평군	23.54
광명시	47.52	연천군	22.95

(그림 9) 지자체별 재정자립비율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학군이 밀집되어 형성된 지역일수록 면적당 인구수가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오락 및 유흥업소가 형성됨을 확인했다. 또한 오락 및 유흥업소가 교육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갖고 밀집되어 형성된 지자체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비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면적대비 학군과 오락 및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형성된 지역일수록 재정자립비율이 낮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교육기관보다 더 높은 수의 오락 및 유흥업소가 분포됨을 확인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유흥주점 영업 현황 인허가, 경기데이터드림, 2020
- [2] 어린이집 및 유치원 현황, 경기데이터드림, 2020
- [3] 초·중·고등학교 현황, 경기데이터드림, 2020
- [4] 당구장업 현황_인허가, 경기데이터드림, 2020
- [5] 청소년 게임 제공업체 현황 인허가, 경기데이터드림, 2020
- [6]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체 현황 인허가, 경기데이터드림, 2020
- [7] 휴게음식점 현황 인허가, 경기데이터드림, 2020
- [8] 학원 및 교습소 현황, 경기데이터드림, 2020
- [9] 시군 재정자립도 현황, 경기데이터드림, 2020